

# 태평양주보 KOREAN PACIFIC WEEKLY

발행인 발행소	동지회중앙부 931 노스킹스트리트 호놀룰루, 하와이	Publisher Address	Korean Dongji Hoi 931 North King St. Honolulu, Hawaii
사장 주필 전화	리정근 김창원 850-849	President Editor Telephone	Chung Kun Lee Donald C.W. Kim 850-849
발행호수 발행일	1763 음력 구월 8일 22일 금요일	Subscription Issue No. Date	\$10.00 per year 1763 Oct. 3, 1969: Fri.

## 암착카도의 핵실험 관계자 백삼십명이 관추

(앤카벡지 10월2일발, 에이피) 캐나다, 일본 그리고 국내에서는 애라스카, 하와이 각주의 시민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애류산 연도 암착카도의 지하핵폭 실험은 하와이시간으로 정오에 실시될 예정이다. 1메카톤급의 폭발에 의한 지진이나 쓰나미의 유발을 두려워하는 항의의 소리에 대해서, 미원자력위원회의 밀러실험부장은 1일의 기자회견에서 "실험은 안전히 성공한다고 확신하고있다" 라고 말하였다. 핵폭발물은 섬의 화산암의 층에 떨어진 4천척의 구멍속에 깊이 설치되어있다. 백30명의 관계자가 28마일 떨어진 큰크리드호로부터 실험의 결과를 관측한다. 레레비존, 카메라중 한대는 도내를 걸친 단층에의 영향을 바칠 예정, 다만 한대는 폭발지점으로부터 4천5백척 떨어진 지점에 노린 동굴 7마리에 향하고있다. 이외에도 1만4천척의 지점에 더 다수의 동물이 노여있으며, 핵실험의 동물에대한 영향이 관찰된다. 또 해상에있는 공포 푸린스톤, 구축함 2척, 관측함다수로부터도 실험결과가 관찰될것이다. 밀러 애라스카주지사는 1일 다시 실험반대파의 동주의 민주당의원3명에대해서 전보를치고 "나는 실험이 안전히 거행될것, 실험이 미국의 안전보장에 필요하다코믿고있다" 라고 말하였다.

## 미국 캐나다 국경에서 시위

한편 반대파의 캐나다학생 약4천명은 1일 "미국은 주저되고있다" 라고 쓴 표시를 걸고, 밴쿠버 남방의 미국-캐나다 국경을 봉쇄, 6명이 체포되었다. 오늘도 약2천5백명이 국경의 부두인 빅토리아에서 시위를하고있다.

## 소련이 비난

(모스크바 10월2일발, 에이피) 소련의 이주베스차지는 2일 "암착카도의 미핵실험은 지진과 쓰나미(파도)를 유발할 위험성을 가지고있는 동시에, 미국의 군비경쟁에 있어서의 확대를 의미하는것이다" 라고 비난하였다.

## 파리 화평회담 무진전

(파리 10월2일발, 에이피) 파리 화평회담은 2일, 4시간만에 걸쳐서 열려, 주로 "남비에트남의 자주결정" 의 의미에대해서 논의되었다. 회담의 정돈을 라파할만한 움직임은 조금도 보이지않았다.

(제 1 편)



(제 2 면)

## 반환후도 기지는 현재와 같이 사용 오기나와 문제에 국방총성축이 표명

(와싱튼 10월1일발 공동) 미하원세출위원회가 1일 발표한바에의하면, 미국방총성은 반환후의 오기나와미군기지를 현재와 "거의 마찬가지로" 사용할수있다고 가정하고있으며, 오기나와반환 때문에 마이쿠모네시야의 중부래명양제도에의 기지이전등 축정의 제회를 갖고있지않다.

이중언은 70년도군사건설지출법안에대해서 스리미국방차관보(시설병참담당)등이 7월8일에 한 것으로, 동차관보는 "반환후에도 오기나와 미군기지를 여태까지와 마찬가지로 사용할 계획 이다" 라고 몇번이나 말하고있다. 그러나 핵을 백분제의 상제에대해서는 삭제되어있기때문에 불명이다. 오기나와교섭은 이중언후 진전되고있는데, 동중언은 미축이 만일 72년의 반환시에 비에트넌전쟁이 계속되고있더라도 오기나와로부터의 발전에 지장을 일으키지않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취하고있을것을 입증하는것이다.

또 이 청문회에서 일본, 오기나와문제반면에대해서 트래랜드.통 민주당의원 "현일본정부가 만족하더라도 일본국민의 대다수가 만족하지않는다" 라는 가능성을 지적하고있는데 주목된다. 그러나 이것은 의원축이 일본의 주장에 호의적이라는것은 아니고 도미역 "미국은 일본의 책략에 속지말라" "미국은 오기나와에 수석적불을 스도았다" 등 오기나와교섭에 경제적인 발언이 눈에 띈다.

## 타이주류미군 처분명을 철퇴공표

(밴콕 9월30일발, 에이피) 타이주류미군의 철퇴문제에대해서 협의중인 미국, 타이양국은 30일 공동성명을 발표, 미국은 타이주류총병력약4만9천명중 6천명을 내년7월까지 철퇴시킬것을 명백히하였다. 동철퇴는 주간내에 개시할 예정이다. 타이주류의 미군은, 공군약3만6천명, 육군 지원부대 1만2천명, 군사교관 1천명, 합계약4만9천명으로되어있다. 공동성명서는 "또 철병계획 은, 비에트넌전쟁에 관련한 작전상의 필요조건에 모순되지않도록 될수있는데도 속히 수행될것 이라고 말하고있다. 또 타이주류미공군은, 북쪽정지선에 북쪽행의 대반을 바로 맡고있었다.

또 최근에는 라오스영내의 호.치.민 토를 폭격, 남비에트넌영내의 대적작전에도 관계하고있다. 닉슨대통령은 이미 남비에트넌주류미군중 합계 6만명의 철병을 발표하고있으며, 이번의 타이주류 미군철퇴계획에의해, 동남아세아방면으로부터 철퇴공표가된 미군은 합계6만6천명이 되는 셈이다.

## 서독선거에 미국은 호감

(와싱튼 9월29일발 공동) 미정부측에서는, 서독총선거에서 기신거정권의 여당이 전번과 거의 마찬가지로의 득표율을 올린것은 기신거정권의 신임을 의미하는것으로, 호감을가지고 말하고 있다. 또 미정부가 그의 동향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있던 극우의 국가민주당이 5%도 넘지못한 것에 안도감을 느끼고있다.

## 부란트외상 서독수상에 임후보

(본 9월29일발, 에이피) 사회민주당의 수 부란트외상은 29일, "연방의 회에있어서의 수상 선출에 임후보한다" 라고 성명을 발표, "또 이 선거에대해서, 사회민주당은 크리스토포 민주.사회동맹(기신거수상이 당수)과의 연합을 하고, 새로 자유민주당과 연합한다고 옹고 하였다.

(제3면에 계속)

(제 2 면)

(제 3 면)

(제2면으로부터 계속)

사회민주당이 연립에 성공, 부란트당수가 수상으로 선출된다면, 서독정치사상에서 39년만에 사회 민주당정부가 수립되는 셈이다. 28일의 총선거에서의 득표율은 사회민주당이 42.7% 3.4% 증가) 크리스토포민주.사회동맹이 46.1% (1.5% 감소) 자유민주당 5.8% (3.7% 감소) 였다.

## 중공과 일본이 초대국이 될 가능성

(푸라이은 10월2일발, 공동) 히리영국국방상은 1일, 국련협회의 집회에서 연설, 중공, 일본이 군사적으로도 초대국으로될수있다고 예측하고, 다음과같이 말하였다. 중공은 20년내에는, 미국과 소련을 합친 군사력을 초과할만한 군사적잠재능력을 가지고있다. 또 일본도 중공과 마찬가지로 초대국이 될 가능성을 가지고있다. 일본은 지금현재 군대를 가지고있지않고, 세력 군형의 역할을 할 외교정책을 취하지만안고있는데, 일본의 이러한 자발적억제가 금후 10년이나 더 계속될것은 아직 모른다. 일본은 미.소양국에이러 경제력을 가지고있는데, 가까이 소련을 따라치울것은지도 모른다.

## 명예와 정의의 화평을 누는시 제안

(와싱튼 10월1일발, 에이피) 닉슨대통령은 9월30일밤, 백악관에서 공화당상원의원 10명과 혼담 하였는데, 스타트공화당원내총무에의하면, 대총령은 이석상에서 "나는 미국역사상 최초의 패복을 마지하는 대통령이 될 의사는있다" 라고 말하였다. 스타트총무는 "대통령은 반복해서 사상방에 명예와 정의가 남도록하는 화평을 제안하겠다고 말하였다. 또 5월14일의 닉슨화평제안은, 여태까지 "이종류의 내전에서 어떠한 나라가 제안한것보다 더 공평한 성격을 가지고있었다고도 말하였다" 라고 전하고있다.

한편 이혼담에는 참가하지안했는데, 라워공화당상원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가까운 장래에 공산 축이 화평에의 걸음을 보이지안한한, 미국은 북쪽재개를 생각하여야한다" 라고 말하였다.

## 메디케어 입원비 부담액을 내년초 인상

(와싱튼 9월29일발, 에이피) 후생교육성은 26일, 메디케어 대상자의 입원비의 자기부담액을 60일내의 입원에대해서, 종래의 44불로부터 52불로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새로운 부담율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닉슨대통령은 25일에, 국회사회보험 위원회에 사회보험의 수익을 내년 4월1일부터 10% 인상하도록 요청하였다.

## 아폴로 비행사 3명 세계 친선여행

(휴스는 9월29일발, 에이피) 아폴로 11호의 암스트롱, 올드린, 코린스 3비행사는 부인동반으로 29일, 애린은공군기지에서부터 대통령송용제트기를타고, 세계친선여행을 떠났다. 일정은 38일간 으로, 22개국을 돈다. 최초의 방문지는 멕시코.시리이다. 3인은 달착륙지점에 노코은 기념판 의 복제를 각국에 증정한다.

## 흑인단체서 차의불 배상을 요구

(오노루루 9월30일) 350년전에 설립된 흑인단체의 기관지로서 흑인단체 인종평등의회로부터 60억불의 배상을 요구되고있는 전미흑인노동조합은 28일 흑인축의 요구를 실행 불가능이라고 거부하였다. 인종평등의회의의 요구를 거부의 의제로 삼게하기 위해 뉴욕으로부터은 토이.인니스, 비러.소로몬양씨는 은행업자협회에서 인종평등의회의의 집회에 초대되었는데, 인니스 주사는 본회의참가를 요구하고 거부되었기때문에 위원회의의 출석을 거부하였다.

(제4면에 계속)





(제3면으로부터 계속)

대상요구를 본회의에 걸지도안코 도시문제협의 위에서 거부한것에대해서 인종평등회의측은 극도로 불만을표시하고, 금후에는 자유스런 입장에서 각은행을 상대로 대처하여간다고 말하고있다.

### 미국, 비에트남과 비밀접촉 ?

(디트로이트 10월4일발 에이피) 4일의 디트로이트.후리.프레스지는 외신론점으로 "닉슨정권은 비에트남전쟁해결을 구하여, 북비에트남신정권에 비밀리에 교접 접촉을하고있다" 라는 기사를 게재하고있다. 이기사에의하면, 비밀접촉은 오.치.민전대통령사망후의 신정권에 회명을 구하는 자세가 전보다 더 강함가의 태도를 알기위한것이라고한다.

### 중공 정책 전환의 징조

(뉴욕 10월4일발, 에이피) 가스.롤 미공산당서기장은 3일 회견에서 "중공은 소련과 단 공산 제국과의 사이의 간격을 매우려고 점점 노력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또 중공은 집단지도제의 방향으로 향하고있으며, 모택동주석의 직접적인 역할은 점점 적어져간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였다. 홀서기장은 또 9월11일의 코스이긴.소련수상과 주은래.중공수상의 북경 회담을 "중공 정책에있서서의 일종의 전회점" 를 표시하는것이라고보고, "중공은 세계 공산당운동에있서서 결정적인 세력이 되려는 정책으로부터 방향을 전환하고있다" 라고 말하고있다.

### 핵실험 무사히 완료, 2회 실시 예정

(호노룰루 10월3일발) 2일 애류산열트 암라카토에서 거행된 미 원자력 위원회의 열핵폭발지하 실험은, 걱정되고있는 지진도 쓰나미도 유발하지안코 "뚝났다. 미 원자력 위원회의 발표에서는 폭발에의한 지진의 규모는 6.5로 캐리블니아에서는 4.8, 호노룰루에서는 4.6이 기록되었다. 64년의 애라스카 대지진은 8.5였다. 이성공에의해서 원자력 위원회에서는 아직도 두번의 실험을 행할 계획이다.

### 철도 파업 일시 회피

(우로리다주 키비스켄 10월3일발, 에이피) 주말을 키비스켄에서 정양중인 닉슨대통령은 3일, 철도6회사와 전미철도노동조합회의의 분쟁을 조사하는 긴급위원회설립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 서독 차기 수상 부렌트 씨

(동경 10월3일발, 공동) 서독의 사회민주당과 자유민주당은 3일, 양당이 연립정부를 결성하는 것에 기본적인 합의를 보았다고 발표, 소련정권실현이 거의 확실하게 되었는데, 외무성측은 신정권이 핵방조약에 조속히 조인할것으로보고있다. 서독신정권은 핵방조약조인에 들어설것인데, 이제의 이유는, 신정권의 부렌트사민당당수, 쉘 자민당당수가 다 종래로부터 조기조인 론자이며, 반대내지 심중론자였던 기사신자씨 (크리스크로민주.사회동맹) 이 정권은 더난다는 점이다. 외무성은 서독정권이 핵방조약에 조인한다면, 소련정부가 비준을 결정, 이어 미.소양국이 비준서를 등기 기략하여 핵방조약발효를 위한 전제조건이 순다라고 추측하고있다. 이경우, 조인을 주저하고있는 일본정부가 남는것이 되고, 일본정부의 외교상의 입장이 불리하게된다는 견해가 외무성내에 강하고, 정부내부의 핵방조약조인론의가 다시 활발하게될것이다.

### 김정수, 부총장

세인트.루이스시병원에서 정양중인 김창수 총장 특사김재부씨는 그간 계속하여 의사의 진단 검사를 맞고, 정양중이시라는데, 일반의 문병은 금지되고있다고한다.

